

지나간 미래

1부.

- 근대로 이행기에 나타나는 시간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성찰

- 시간적 구조변화가 일어나는 삼백년의 중요성, 근대 이행기.
- 프랑스 혁명이 종교개혁에 연유, 시대의 처음과 끝.
- 정치가들의 관심은 시간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
-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적 무관심의 원칙을 평화의 기본으로 간주.
- 서유럽은 내전을 거쳐 현대국가로 변모, 독일은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내전의 형태로 국가간 전쟁을 경험.
- 종교과 정치의 새로운 관계가 현대적 시간 경험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7
- 종교를 정치적으로 속박하거나 중립화하는 것이 성공했을 때 근대적 의미의 평화가 성취됨.
- 종교적 의미의 성스러운 역사, 인간사, 자연사가 구분됨. 종말의 문제가 종교사에서 자연사, 나중에는 인간사의 관점에서 간주되기 시작.
- 절대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종교적, 정치적 예언들에 대한 투쟁이 발생. 국가가 묵시론적이고 점성술적인 미래해석을 억압하면서 미래를 독점하고자 시도. 29
- 기존의 미래해석들이 마침내 해체된 것이 17세기의 특징. 국가는 힘이 있을 때 미래 해석을 박해하면서 개인적, 지역적, 민속적, 비밀의 영역으로 추방함. 대표적인 예가 1670년 스피노자의 예언 비판.
- 중세로서의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가능해짐. 고대, 중세, 근대의 개념이 17세기 중반에 비로소 쓰이면서 새로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 예언에 대응하는 합리적 예견, 즉 예측 개념이 발생하기 시작. 미래가 유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되고, 개연성에 따라 평가됨. 보당의 경우처럼 인간사의 주제가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강요한 미래관에서 정치가들의 실제적 미래관으로. 문제는 대악이나 소악이나.
-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현재보다 미래를 사고하는 것이 중요해짐. 예측은 예측가능하면서도 불확실한 시간을 창조.
- 예측은 시간을 생산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그 시간 속으로 자신을 투사. 반면 묵시론적 예언은 시간을 근절시키는 효과.
-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영원성의 관점이 확장. 역사 속에서 미래라는 미래의 영역은 존재 불가능.
- 역사철학이야말로 근대 초기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킨 장본인. 정치와 예언을 대담하게 조합시키는 시간의식과 미래의식. 합리적 미래예측과 구원을 확신하는 기대의 혼합이 18세기의 특징이며, 진보의 철학이 됨. 37
- 진보는 미래에 대한 독특한 시간의식에서 비롯. 자연적 척도를 사용하는 한 시간구조는 정태적. 자연적 척도는 잠재적 반복 가능. 따라서 역사를 유희적은 것으로 사고.
- 반면 진보는 자체적 역동성을 가지고 탈자연적, 장기적 예측을 불러오는 형태로 존재.
- 진보의 특성: 1. 가속성. 2. 미지성. 미래는 가속적으로, 불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의식. 미지의 것이 갖는 복잡성 때문에 현재적인 것은 경험불가능. 현재는 미래를 통해 역사철학적으로

로 포착될 수밖에 없게 됨. 가속의 자취 속에서 자연이 생겨나며 자연은 혁명과 반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적 시간을 촉진시킴.

- 현재적 역사철학의 담지자는 시민계급이 됨.

- 새로운 역사개념과 시간 개념의 출현

- 이전에 Historie가 갖는 탈역사적 교훈적 역사가관인 Geschichte로 변모됨. Historie에서 역사는 다양한 경험들의 저수조. 삶에 대한 범례였음. 후세들을 더 나아지도록 유도. 과거와 미래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인간본성의 항상성을 가정하는 확실한 수단. 사회적 변화는 장기적이며 느린 것. 45-46
- 새로운 Geschichte는 고유한 시간적 질을 획득하고 상이한 템포들과 변화하는 경험기간이 범례적 과거의 명증성을 파괴함.
- 토크빌, “과거가 자신의 빛을 미래에 비추기를 중단하자, 인간의 정신은 암흑 속을 헤맨다.” 54. 미국의 민주주의, 4부 8장.
- 1750년 이후 Historie는 Geschichte로 바뀜. 후자는 사건 내지 행위의 결과를 뜻하고, 보고보다는 일 자체를 지칭하기 시작. 사건의 의미와 서술의 의미가 Geschichte로 수렴. 일회적 사건이나 보편적 사건연관으로서의 역사. 이전의 범례적 보고로서의 역사처럼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님.
- 새로운 의미의 역사는 즉자대자적 역사, 역사 일반, 역사 자체를 의미. 단수형으로서의 역사가 성립. 프랑스 혁명 이후 역사 자체가 신의 전유물인 전지전능함과 절대적 정당성과 신성함을 지닌 주체가 됨. 대표단수로서의 역사가 성립.
- 서사적 통일성이 역사서술에 요구되면서 시학, 미학적 전환이 일어남. 연대기적 순서 대신 숨겨진 모티브가 중요. 우연적 사건에서 내적 질서를 찾으려는 화용론적 구조를 만들어 감. 역사에 거창한 서술기법을 도입, 시학의 요구들이 반영됨. 59
- 역사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 시학의 영향. 일련의 개별사들을 포함하는 보편사가 세계사로 변화되는 때. 칸트는 이성적 체계로서의 역사를 추구. 체계적으로 이해된 역사만이 내적 연관을 발굴하여 기초짓는 서사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만들. 헤르더는 힘과 방향이라는 개념화.
-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이러한 독일의 역사주의 학파의 역사개념을 확정. 그때 그때의 일회성 속에서 보편적 작용연관이 역사라는 단일개념으로 포괄된다는 명제. 랑케의 논의. 1824.
- 비코. 자연연관적 연대기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 시간이 발견됨. 기존에는 시간 범주가 연관되는 형태. 역사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시간을 다룬 것이 역사철학의 업적. 66
-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는 우리의 경험가능성을 벗어난다. 종결된 경험은 지나간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 반면에 미래에 행해질 경험은 상이한 시간적 확장의 무한성 속으로 흩어진다.” 67
- 현대사에서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열려있으면서 계획가능한, 계획되어야 하는 것. 경험불가능성과 생산가능성이라는 두 측면.
- 결국, 역사의 단수성, 시간화, 비길 수 없는 강대함, 생산가능성이라는 명제들. 71
- 혁명의 개념도 영향을 받음. 원래는 회귀를 의미하는 물리정치적 개념. 정해진 정체들의 순환을 의미하는 과거 시간 개념에 기초. 내전과 혁명 개념이 분리된 채 존재.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새로운 지평.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은 미지를 향해 나아갔고, 미래를 인식하고 장악하는 것이 정치의 항구적 과제가 됨. 86

- 근대적 혁명 개념의 특징이 정착됨.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이 대표단수로 정착. 개별혁명들의 경과를 함축하는 대표단수가 됨. 가속의 경험도 부과됨. 운동이라는 혁명적 계수를 가지게 됨. 미래에 대한 시각이 변화면서 과거관도 변화.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의 진보 혹은 경로가 만들어짐.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세계혁명이라는 관점도 함께 성립. 영원히 정당한 정당성의 근거를 창출. 이후 내전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정당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위치.
-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지속적 구조와 운동력을 통일시키는 역사이론이 필요해짐. 로렌츠 폰 슈타인의 사례.

2부

- 개념사의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 서술

- 개념사와 사회사의 관계. 개념사는 고전적인 사적, 비판적 방법을 얼마나 따르며, 사회사의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개념사는 얼마나 독자적인 분과를 형성하는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사가 불충분하게 연구될 정도의 독자적인 이론적 요구들을 개념사가 얼마나 지니는가?
- 개념들은 사건들의 파악에서 나아가 미래에 개입. 더 많은 미래 개념들을 창조, 언어적으로 먼저 생겨나고 지위를 획득하는 현실의 흐름. 개념들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개념들의 경험내용은 더 적어지는 현상: 경험내용과 기대공간의 불일치라는 중요한 사건. - 주의라는 개념들. 집합개념이자 운동개념으로서. 일례로 혁명은 모델언어에서 역사철학적 목표이자 정치적 행동개념으로 변모. 결국 개념사는 사회사의 통합적 일부가 됨.
- 과거의 개념들의 규정양상, 언어의 이해, 사용양상을 조사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해명.
- 중복되는 대응개념들이 중요. 배후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론들을 해명하는 과제가 필요. 129
- 개념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의 용법에 주목. 사료비판의 특수한 방법. 개념들의 사적 해명이 언어사 뿐 아니라 사회사적 자료와 연관되어야 함.
- 개념사는 사회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독자적 영역을 형성. 사회사, 이념사와 관련.
- 한 개념의 역사에서 당대의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측정하고, 그 개념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과 계층에 따른 독특한 용법을 조사하면서, 즉 공시적 분석이 시대상황을 함께 다루면서 개념사의 방법은 두 계기를 넘어 세분화됨. 130
- 단어사와 개념사의 차이.
- 통시적 분석의 방법론적 의무. 상황연관적 맥락 조사 이후 시간 연쇄를 통한 추적이 필요. 통시적 작업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개념의 지속력, 통용력, 개념에 상응하는 구조가 나타남. 시민이라는 개념의 사례. 131

- 시간적 측면에서 사회적, 정치적 개념들은, 전통개념, 역사적 변화 개념, 신조어로 분류가 가능함. 132 즉, 지속, 변화, 새로움.
 - 언어의 삼각구조: 단어형태(지칭)-의미(개념)-실재
 - 모든 개념들은 단어에 근거. 모든 단어들이 사회적, 정치적 개념인 것은 아니다.
 - 사회적, 정치적 개념들은 다의적, 구체적으로 보편성을 요구. 단어는 사용되면서 명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은 개념이기 위해 다의적이어야 한다. 개념 역시 단어에 근거하지만, 단어 이상이다. 134
 -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연관과 경험연관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유입될 때, 단어는 개념이 된다. 개념은 많은 의미내용들의 농축물이다. 135
 -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없는 것 뿐이다.” 니체
 - 실재사의 내용 자체가 언어화된다. 개념사는 사적 분과로서 항상,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계하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이전에 사료에서 이미 개념적으로 파악되거나 강조된 것들이다. 개념사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개념과 역사의 일치를 주제로 삼는다. 인식론적으로 보았을 때 개념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념사적 방법은 단어와 실재 사이의 소박한 상호순환구조를 파괴한다. 개념은 언어화된 시대정신과 사건연관의 동일성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개념으로서만 역사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단견이다. 오히려 개념과 실상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며, 사회적 실상과 언어사용에는 항상 틈이 있다. 단어의 의미의 변화와 실재의 변화, 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지칭에 대한 필요는 여러방식으로 서로 작용한다. 136
 - 개념사는 사회사에 대하여 생산적인 인식지향적 긴장이 생긴다. 공시적 분석과 통시적 분석을 번갈아 사용하여 지나간 경험들의 지속과 지나간 이론들의 유효성을 해명하는 것이 개념사의 장점. 연대기적으로 상이한 시대에 연유하는 한 개념의 여러 의미들의 다층성을 해명한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에 주목. 사회사가 단기간이나 장기간을 비교하고 사건과 구조들을 서로 비교할 때, 개념사는 무엇이 사회사의 이론적 전제인지를 다룬다.
 - 역사적 사건이 갖는 일회정보다 더 오래 단어의 의미가 지속되는 것이 언어의 보편적 성격. 일회적 의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역사적 사건연쇄로 소급될 수 없는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을 다룬다. 지속, 반복적용 가능성, 경험적 이행가능성을 요구하는, 즉 구조적 요구를 지닌 개념들만이 이전에 현실적이었던 역사가 현재 가능한 것이 되는지를 밝혀준다. 141-142
 - 현실과 개념 사이의 생생한 긴장이 사료언어와 학술언어의 차원에서 다시 등장. 장기적 구조를 연구하는 한, 사회사는 개념사의 이론적 전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건과 구조의 시간적 관계, 지속과 변화의 공존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데 유용. 143
- 구조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베버의 경우. 학술개념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 변화하고 교차되는 정체 가능성을 서술. 형식적, 보편적으로 충분하고 정체가능성이 사적 개별성들에서 그것을 포괄하는 구조를 드러냄. 144

- 구조라는 단어. 구조사라는 단어. 경험된 사건들의 엄밀한 연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연관들이 파악된다. 구조는 더 견고한 지속과 더욱 큰 항상성,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만을 나타낸다. 역사(Geschichte)라는 단어에서 공간적이며, 정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층화(Schichtung)'라는 의미의 띠가 구조사라는 이중화를 통해 은유적으로 환기된다. 163
- 구조적 조건들은 순간적 사건에 개입하지만 연대기적 의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들에 우선한다. 구조들의 시간적 상수들이 한 사건의 연대기적 경험공간을 넘어선다. 규정가능한 주체들이 사건을 발생시키는 한편, 구조는 초개인적, 상호주체적. 구조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집단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구조는 시간 외적 단위가 아니라 일상의 경험에도 개입하는 과정적 성격을 가진다. 164
- 너무 지속적이어서 구성원들의 무의식이나 무지 속에서 지양되는 구조, 혹은 장기적인 변화이어서 당사자들의 경험지식으로는 변화를 포착할 수 없는 구조도 존재한다. 사회과학, 역사학만이 당사자 세대의 경험단위를 넘어서는 과거를 논의할 수 있다. 165
- 사건과 구조들은 역사적 운동의 경험공간에서 상이한 시간적 외연을 가지고, 역사학만이 이들을 다룰 수 있다. 사건과 구조는 서로를 지시한다. 개별적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구조들은 사건이 그것들을 드러내주어야만 파악된다. 이러한 단계 및 층위설정방식은 개별사건에서 세계사로 이어진다. 체계의 연관이 강하고, 구조적 측면들이 장기적일수록, 엄격한 연대기적 이전과 이후로 기술될 수 없다. 근대사의 과정적 성격은 구조를 통한 사건의 해명과, 사건을 통한 구조의 해명을 통해서만 파악된다. 167
- 구조의 작용성은 다른 시간 차원에 의지할 뿐, 결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 구조가 경험적으로 파악가능한 개별사건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수록, 그 구조는 이전의 구성원의 의식이나 구조를 벗어나면서 더 큰 작용력을 얻을 수 있다.
- 따라서 역사가는 역사적 개념들을 사용. 지난 풍부한 사건연관을 포괄해야 하고, 과거를 파악하게 해주는 개념.

- 역사주의의 역사인식 방법

- 역사주의의 이론적 전제이며 진보의 이론적 전제는 사건의 일회성. 반복을 용인하지 않는다. 현대의 역사개념을 규정하는 개별적 일회성의 공리는 구조적으로 사실적 새로움이 아니라 근대적 변화의 유일성 전반에 관계한다. 172
- 19세기 역사주의 학파는 우연을 완전히 제거. 현대적 역사개념에 내재했던 신학적, 철학적, 미학적 함의들을 통해 우연을 제거. 아르헨홀츠의 사례.
- 훔볼트. 역사의 내적 통일성과 단수성은 인과론적 영역을 벗어나며, 회귀의 상징인 행운의 여신이나 우연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 우연의 일회성이 역사 자체의 일회성 속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 192

- 모든 사건들은 일회적인 것으로 되고, 모든 시대가 직접 신과 연관된다. 우연은 우연적일 자유마저 빼앗긴다...역사주의의 미학적 요소는 신학적인 근거설정 이상으로 우연이라는 계기화가 불가능한 요소의 등장을 박는다. 고도의 수미일관성이 필요하다. 불변의 법칙성을 치장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 195

- 해석학과 개념사의 관련성

- 추체험의 가능성은 인간의 본성이 항상 동일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 역사가는 이해를 매개로 한 사료비판을 통해 원칙적으로 역사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딜타이 등의 견해. 197-198

- 역사가가 사건사에서 눈을 돌려 장기적 흐름, 구조, 과정을 관찰한다면 내재적 사료해석은 극복되어야 한다. 사건들은 문헌들을 통해 직접 파악되지만, 장기적 흐름, 구조, 과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한 역사의 이론이 필요. 사료를 통해 전혀 접근할 수 없거나, 연구라는 이차적 과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전체 역사나 개별적 역사들에 대해서 수많은 진술이 존재. 230

- 역사가 경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사료의 문제가 아니며 이론적 결정의 문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만 사료는 말하기 시작. 가설이 없다면 사적 연구는 나올 수 없다. 엄격히 말해서 사료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없다. 사료는 거부권을 갖는다.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려면 가능한 역사들의 이론이 필요하다. 당파성과 객관성은 이론형상과 사료해석의 긴장 지평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차한다.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나머지도 무가치. 231

• 3부

- 역사가 새로운 성찰개념이 된 18세기에 역사가와 작가의 벽은 붕괴. 소설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역사적 현실 자체를 언어화해야 했다. 반면 역사가는 이론과 가설과 증명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신빙성이 있게 만들어야 했다. 창안하는 문학과 보고하는 역사라는 수사학적 대립은 이렇게 사라짐. 역사가는 기법적, 도덕적, 합리적으로 역사를 구성해야 하고, 허구라는 수단이 주어졌다. 312

- 계몽주의에 이르러 역사가가 이론을 따를 때에만 복잡한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결론. 313

- 개념쌍. 역사적 세계에서는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하게 대조되는 개념들이 다루어진다. 안티테제로서 취급된 개념들은 상이한 집단들 간의 다양한 실제관계와 계층분열을 지나치게 형식화시킨다. 238-239

- 사료를 행위자가 언어화하는 역사적 자기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의미구조의 언어적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 240
- 180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개념이 통용. 근대의 개념은 1870년에 와서야 통용. 1800년 전후로 진보의 경험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사적 시점이론과 역사적 진술의 입장 연관성이 이론이 사적 인식론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 363 이때 과거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파악되기 시작.
- 단절과 이행이 시기에 대한 인식이 시작. 1770년-1830년 사이, ‘최신의 시대’에 시대문턱에서 수 백개의 신조어들과 합성어가 사용되기 시작. 375
- 경험공간과 기대비평이라는 두 개의 메타역사적 범주. 역사적 시간을 인식하고 특히 근대의 탄생을 이전 시간들과 비교할 수 있다. 경험과 기대의 비대칭성이라는 인류학적 전제가 그 비대칭성을 진보적으로 해석했던 격변기의 특수한 인식론적 산물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414-415//

생각해 볼 점들

- 구조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은 가능한가? 구조의 존재론적 위상, 인식론적 파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
- 해석학적 방법과 개념사적 방법의 인식론적 공통점과 차이점.
- 사료언어와 학술언어의 차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
- 개념의 공시적, 통시적 구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 프랑스 탈근대이론가들, 언어철학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문법구조와 개념의 통시적 구조.
- 근대 이후로 이행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간의식은 가능? 새로운 기대지평을 담을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
- 동아시아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메타역사적 범주, 역사적 시간의식의 변화를 추적한다면?//